

오륙도 칼럼



김달현

6월 따사로운 햇살에 푸른 잎들이 반짝인다. 파릇파릇한 연두색 새싹들이 어느새 자라서 녹색 옷으로 갈아입고 무성함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싱그러운 계절에 시간만 나면 산으로 들로 숲을 찾아 떠난다. 숲은 우리에게 왕성한 생명활동으로 기를 불어 넣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순화시켜준다. 또한,

광합성작용으로 금방 만들어 낸 산소를 시원하게 마시게 하고 나무에서 내뿜는 독특한 향기로 기분을 좋게 한다.

요즘 숲을 찾아 멀리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 남구 주민들은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남구에는 숲이 우거진 천혜의 절경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이다. 우선 동해바다가 넘실거리는 용호동 장자산 자락 해안 절벽 산책로에 들어서면 동생말-여울마당-해안 오솔길-오륙도-쪽으로 내려가는 약4.7km 유산소운동 길을 걷고 나면 쌓였던 체증이 속 내려가는 좋은 그린웨이(green way)다.

숲의 고마움

신선대 입구에서 시작되는 숲 터널 길을 올라 정상에 이르면 부산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신선대, 감만부두 등이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림 같은 남구의 숲

날씨가 좋은 날엔 대마도가 아련히 바다위에 내려앉아 절경을 더해준다. 그리고 황령산 편백 숲속을 찾게 되면 나무에서 피톤치드라는 특이한 성분이 고혈압 당뇨 암 등 질병 예방 치료에 좋다고 한다. 이곳에 가면 그림과 독서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필자도 동리 친구들과 그 편백 숲속에서 가끔 독서 시간을 가져 보면 아주

성과가 좋았다.

그 외 유엔평화공원에도 숲이 잘 가꾸어져 있어 우리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얼마 전 미추동부 여행 할 때 케나다 쪽으로 나아가자라 강변 따라 상류 길로 가는데 강 주변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이 잘 관리 되어있고 중간 중간 예쁘게 화단도 잘 꾸며놓았다. 자연과 인공이 잘 조화 된다고 생각되어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여기의 모든 숲은 별도로 예산을 많이 들여 관리 하지 않고 원예학교가 있어 학생들이 실습하면서 가꾸며 관리한다는 설명에 이런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배워

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미국 하버드대학 교정에 들어갔더니 그리 높고 크지 않은 건물들이 숲속에 웅기종기 배치되어 아담한 느낌을 받았다. 여름철에는 이 학교 학생들이 나무그늘이나 잔디밭에 앉아 공부하고 낱씨가 추워지면 실내에서 강의실 현관 등이 비좁을 정도로 뽁뽁하게 앉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한다.

숲속의 하버드대학 교정

현관 벽에 전기꽃이가 일렬로 길게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버드 공부벌레”란 말을 실감했다. 지금 우리 주변 아파트단지 내에도 조정 사업을 잘 해 놓은 곳이 많

다. 그러나 그곳을 독서장이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름철이 독서의 계절

우리는 아이들이 방안에서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숲에서나 나무그늘 밑에서도 독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가을을 독서의 계절로 삼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숲이 울창한 여름철 녹음 기간을 독서의 계절로 바꾸어 보는 것도 어떨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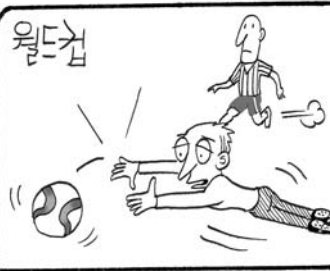
사람들이 숲과 자연과의 대화에서 정서순화는 물론 학습능력도 향상되고 건강도 좋아진다.

이렇게 숲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엄청나므로 우리는 항상 숲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야한다. 그리고 숲은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에 정성 들여 가꾸고 잘 관리하고 보존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하자.

남구문인협회장·대연3동



<173>



선운의

1000자 지혜

73

의 지

너나 할 것 없이 뭔가를 하겠다고 결심은 해놓고도 그것을 끝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만 둔 경험을 한두 번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혹자는 한두 번이 아니라 번번이 그런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무슨 일인가 처음 마음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도 그것을 실제로 행하기란 정말 굳은 의지(意志)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이 의지란 것은 바로 어떤 일을 실제로 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실패의 원인인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숨길 때는 우리는 꼭 핑계라는 방패막이를 내밀기 마련이다.

비근한 예로 학문도 그렇다. 처음에는 목표를 거창하게 세우고 이책저책 다 산다. 그리고 좋다는 학원 다 다니면서 그것도 모자란다고 월급보다 많은 비싼 돈 주고 개인지도까지 받으면서도, 결국은 형편없는 학교 그것도 타격이하며 간신히 들어가는 경우를 자주 본다.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살 몇 킬로 빼겠다고 마음먹고 최신운동기구 빛까지 내어 사놓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구석에 처박아 두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치고 핑계 없는 사람은 없다. 학과를 잘못 선택하여, 몸살이 나서, 이

래서 저래서...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고 옳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인간에게 핑계와 변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난처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핑계와 변명은 고맙고 편리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어쨌든 의지가 약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의지와 핑계는 적(敵)이며, 실패와 핑계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에 틀림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걸어간 사람들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못하겠다고 한다. 안하면 편하게 살수 있는데 구태어 왜 그걸 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물론 하기 싫은 것은 안하면 된다. 하지만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제자리걸음밖에 안 된다. 제자리걸음은 바로 퇴보란 뜻이다. 다른 사람들은 쉬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퇴보가 자신뿐 아니라 나라까지 망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비록 주변의 여건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굳은 의지로 극복해 나가면 이루지 못할 것도 없을 것이며 함께 나라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변역문화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황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도서관 가로등 추가 설치

남구도서관을 2주에 한 번씩 이용하는데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

항상 오후에 이용하지만 어찌다 바빠서 저녁에 가려고하면 많이 깜깜한 것 같는데 몇 개만 더 달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파란 가로등 도입 계획 없어

파란 가로등을 도입하자고 건의하신 대연동 박대곤씨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황색 빛이 나는 나트륨등은 광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어 경제적인 측면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도로 조명이 많이 쓰이고 있으나 시환경, 연색성, 도시경관연속 등을 고려하여 백색광원(메탈할라이드등)으로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2008. 9. 19. “부산광역시 도로의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1301호)”을 개정하여 도로 조명에 적용하는 주광원은 백색광원을 적용(단, 강변도로 등은 투과율이 뛰어난 황색광원 사용가능)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건의하신 파란(푸른)가로등의 도입 또는 설치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과·노진환>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줄 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내부

■詩가 있는 풍경

UN공원, 그곳을 추모하며

세계의 자랑 UN기념공원

아름다운 꽃과 파~란 나뭇잎이

손짓하며 우리를 부른다

여기저기 모여든 사람들

그때 그 슬픔을 가슴으로 노래하고

홀연히 날아든 비둘기도

행한 허공을 맴돌며 성호를 긋는다

묘비 앞 고개 숙인 백발의 할머니

오랜 연인의 빛바랜 사진 떠올리며

그 이름 부르며 밤새워 울부짖네

사위에 어둠이 내려앉고 있지만

어깨를 들썩이는 벽인의 그녀를 두고

나는 차마 돌아올 수 없었네



정봉화

전 시의원·용호1동



최순옥

일요일 아침 10시가 조금 넘자마자 내 손과 마음은 바빠진다. 할머니가 나와 다른 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사는 곳은 법일동에 2층이 될까 말까한 지하 셋방이다. 연로한 탓에 잘 듣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들어서자 금세 알아차리고 “여어 들어와 들어 온나”하며 손짓을 하신다.

나와 짝을 이룬 이웃의 두 주부는 일전에 한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우연히 만났는데 서로 사는 곳이 가까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할머니를 우연히 알게 됐고 의기투합하여 돌봐 드리기로 해서 나간 게 벌써 1년이 다 돼간다.

우리는 한달에 두 번씩 일요일마다 할머니를 방문하여 청소, 빨래와 반찬을 해드리고 어르신들께 말벗이 되어 드리며 정서적인 진구 역할도 한다.

할머니는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려고 집을 나섰다가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던 끝에 동네 사람들에게 의해 집에 돌아온 적도 있다. 처음에 할머니 집을 방문했던 작년 초겨울에 불도 들지 않은 얼음장 같은 바위에 웅크린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우리는 그분들이 자식이 있으니 부모를 모시는 줄로 알았다. 그런데 이 할머니처럼 법적인 자식은 들썩이나 되지만 서로 간에 있고 사실상 남남이 되어 노

모만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경우가 허다했다. 그렇게 홀로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생활이란 정말 힘이 든다.

우리가 도움을 준다지만 그보다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게 더 많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노후의 모습일 텐데 하련 참 많은걸 깨닫는다.

때로 어떤 분들은 우리와 시간을 나눈 뒤 그동안의 외로움에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함께 살아가고 까지 하며 고마워 할 때도 있다. 함께 살아드리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며 등을 보이고 돌아나올 땐 가슴이 찢힌다.

한번은 오랜만에 양로원에 갔다. 건강상태와 정신적 도움 등에 대해 서로 경험을 나누는데 한 보호자가 기념촬영을 하자며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별 말소조차 없으셨던 할머니까지 사진을 찍었다는 말을 서로들 립스틱이라도 바르겠다며 잠시 소란이 있었다.

정말 이분들도 사람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예를 들면 비록 칠순의 할머니지만 카메라 앞에서 예쁘게 보이고 싶은) 너무나 똑같은다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할머니, 지금 소망이 뭐세요?”라고 여쭙자 한동안 말쑹이 없으시다가 조금만 목소리로 “아들 얼굴이나 좀 봐오면...”하셨다. 얼마나 간절하실까,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조차 모르는 그 아들은 어머니의 이런 심정을 아는지...

모든 봉사자들과 도우미들이 방문해서 돌봐 드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도 여생을 조금이나마 더 행복하고 불편함 없이 사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자원봉사자·용호3동

■ 나의 생각

역사의식 되새겨야할 유월



조길래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 60주년을 맞았다. 전쟁은 400만여명의 인명 피해와 일천만여명의 이산가족, 수많은 상이군경, 전쟁미망인, 전쟁고아들이 생겨나고 국토의 80%이상이 파괴되는 등 우리 민족에게 가장 참혹했다.

6·25 전쟁 60주년이 되는 이때 대한민국 전안함과 함께 대국기가 수장됐다는 사실은 하나의 군함이 침몰된 그런 단순한 사건만은 아니다. 전사자 부모형제들의 피 맺힌 절규를 기억하는가? 내 아들이!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니? 우리 모두 고개 숙여 가슴에 새겨야 할

부짚음이 아닌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고 남아 있는 셈이다. 휴전된 지 57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많은 인명피해와 헤아릴 수 없는 재산 피해, 그리고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고스란히 지닌 채 그 때의 아픈 역사의 상처를 씻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1950-Korean War-1953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한 부름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송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우리나라는 이 기념비를 그들에게 바칩니다.”

위의 글은 워싱턴D.C 아브라함 링컨 기념관 옆에 자리 잡은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 새겨진 비문이다. 처음에는 38선을 상

장하기 위해 38명의 병사들의 동상을 제작하려 했으나 장소관계로 그 절반인 19명의 미군병사들이 비웃을 일고 전투대형으로 행군하는 모습으로 인근대학의 학생들과 교수들에 의해 제작된 작품이라 한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한국 사람들, 이역만리 타국 땅 극동 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공산 전락군과 맞서 싸우다가 장렬히 산화한 미국의 젊은이들이 나라의 부름에 응해 5만여명의 병사들이 희생되었음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 인간은 역사를 안고 사는 동물이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설계한다. 이 칼럼에 소개된 한국전 참전기념사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백마고지 유적지, 독립기념관, 또한 우리고장 부산 대연동에 위치한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유엔묘지)에서는 해마다 유월이면 유엔군의 일원으로 6·25 자유 수호전쟁에 참

전한 21개국 참전노병들의 방면하여 자유와 평화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 전우의 명복을 빌고 현화 참배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나라의 소중함을 마음속 깊이 새기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해마다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우방국 11개국 전몰유사 2,300여기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는 참배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껏 준비하고 또한 자녀들의 손을 잡고 다시 찾아 한송이 꽃이라도 현화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추념함으로써 그 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해야겠다. 그리고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나아가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면서 국가에 대한 참다운 봉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동시에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북한 공산세력의 무력적화 통일 야욕을 저지하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국내의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아울러 6·25 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값진 교훈을 우리의 후세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켜주고 자유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치른 전쟁의 본질만을 결코 잊지 않도록 역사 의식을 고취시켜주어야겠다.

영신대 명예교수·용호2동

7월은 주민세 재산신 신고·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세율** : 사업소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허용소 500원)
- 신고 및 납부 기간** : 7. 1~8. 2
- 납부방법** : 사업장관할 구·군청 세무과에 신고후 납부,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 금융기관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etax** 지방세청

http : //etax.busan.go.kr

☎ 문의 : 남구청 세무과 ☎ 607-4252

남부중·고등학교 학생 모집

- 모집대상** : 청소년,성인(남·여)
- 모집인원 및 기간** : 제한 없음, 수시모집
- 장 소** : 문현3동, 문현기동대 옆 건물
- 특 전** : 수업료 무료, 교과서 제공
- 후원계좌번호** : 국민은행 563401-01-186289
- 연락(교무실)** : 622-1205, 010-4544-4734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李 福 熙** / 편집주간 **河 仁 相**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청길 50(우 608-701)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